

현장 중심의
구민과 함께하는 강북구의회

2019년 의원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2019년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내 항일 독립운동 및 일제 만행 유적지를 방문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정 발전과 의원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I 연수 배경 및 목적

□ 연수배경 및 목적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상해 임시정부청사, 윤봉길 의사 의거 현장(구 홍커우공원) 및 기념관, 이제항 위안소 및 남경대학살기념관 등 항일 독립운동과 일제 만행 유적지 등을 방문하여 올바른 역사관 함양의 계기로 삼아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및 역사왜곡 문제 등에 결연히 대처하고,
- 순국선열 애국지사 묘역 및 근현대사기념관 등이 위치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의 역점 사업 등에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 중국의 선진도시인 상해의 주요 기관 등을 방문하여 도시계획, 지역경제, 관광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지문화 체험을 통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Ⅱ | 연수 개요

- 연수기간: 2019. 11. 18.(월) ~ 11. 21.(목) (3박 4일)
- 연수국가: 중국 (상해, 남경)
- 참여명단: 9명 (의원 6명, 직원 3)

연번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1	의 장	이 백 균	남	
2	부의장	유 인 애	여	복지건설위원회
3	의 원	구 본 승	남	복지건설위원회
4	의 원	김 명 희	여	행정보건위원회
5	의 원	김 미 임	여	행정보건위원회
6	의 원	최 미 경	여	복지건설위원회
7	직 원	김 남 중	남	
8	직 원	강 학 구	남	
9	직 원	육 용 현	남	

□ 연수 주요 일정

일 자	지 역	교통수단	시간	주 요 일 정
제1일 11/18 (월)	인천 상해 상해	OZ361 전용차량	09:05 10:05 14:00 16:00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상해 국제공항 도착 - 윤봉길 기념관 및 의거 현장(루쉰 공원) 방문 - 상해 임시정부청사 방문
제2일 11/19 (화)	상해 상해 남경	전용차량 열 차	10:00 14:00 16:00 19:00 21:00	- 강북구 자매결연 도시(상해 가정구) 고의원 방문 - 상해 독립운동가 묘지(만국공묘) 방문 - 상해 도시계획 전시관 방문 - 상해 출발 및 남경 이동 - 남경 도착
제3일 11/20 (수)	남경	전용차량	10:00 14:00 16:00	- 남경 박물관 방문 -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화대표단 본부 방문 - 남경 대학살기념관 방문
제4일 11/21 (목)	남경 남경 인천	전용차량 OZ350	10:00 14:50 18:10	- 남경 이제항 위안소 유적 진열관 방문 - 남경 국제공항 출발 - 인천국제 공항 도착

목 차

1. 연수 도시 및 방문지역 일반현황	5
2. 주요 방문지역 연수 내용	10
3. 기타 방문/견학지 내용	25
4. 소감 및 시사점	30

연수 도시 일반 현황

□ 상 해

- 상해는 중국 본토 동부의 장강 하구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직할시이다. 현대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 중심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 상업, 금융, 산업, 통신 중심지이기도 하다. 행정적으로는 성과 동급인성급시이다.
- 19세기 중반 개항과 함께 발전하여 20세기 초반엔 이미 뉴욕과 런던 다음 가는 세계적 금융 중심지이자 극동의 가장 큰 국제적 상업도시가 되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 된 이후엔 쇠퇴했지만, 1992년 재개발되면서 지금은 초기 경제특구였던 심천과 광주를 능가, 중국의 경제중심도시로 다시 자리 잡았다.
- 특히, 상해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유명한데, 독립지사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우호적인 프랑스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 조계에 살면서 독립운동을 펼쳐나갔다. 이런 까닭에 독립지사들이 상해로 몰려들었고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상해에서 수립되었다. 1932년 4월 29일에는 윤봉길 의사가 상해의 홍커우 공원에서 열리는 상해 점령 전승 기념행사에 폭탄을 투척하여 중국 영토안에서 한국 독립운동의 여건이 좋아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 남 경

- 남경은 장쑤성의 성도인 부성급시이다. 인구는 600만 명이지만 점차 증가 추세이며, 인구 2000만을 목표로 하는 남경 대개발이 진행 중이다.
- 중국 국민당의 최고 지도자인 쑨원(孫文)이 중화민국을 세우고 남경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잘 사는 도시로 발전했다.
그러나 국공내전에서 중국 국민당이 중국공산당에게 패하였고, 실권을 잡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중국공산당은 이 도시의 지위를 크게 떨어뜨렸다.
- 특히 남경은 1937년 남경 대학살로 유명한데, 남경 대학살이란 중일 전쟁 때 중화민국의 수도인 남경을 점령한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 중국인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약 30만 명의 중국인들이 학살 되었고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강간이 자행 되었다. 1937년 12월 13일부터 1938년 2월까지 6주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1939년 4월에는 1644 부대가 신설되어 생체실험 등이 자행 되었다.
- 최근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7만평 규모의 남경 대학살 기념관을 설립하여 매년 12월 13일에 추모식을 가지며, 일본의 만행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방문 지역 일반 현황

윤봉길 기념관 및 루쉰공원	 	기념관은 2003년 12월 4일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와 상해시 흥커우구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건립했다. 2층 규모인 기념관은 윤봉길 의사의 초상화와 그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자료와 사진 등이 전시돼 있다. 루쉰공원은 1905년에 문을 열었으며 홍구 공원으로도 알려져 있다. 중국의 문호 루쉰의 묘와 기념관, 윤봉길기념관 등이 들어서 있다.
상해 임시정부 청사	 	상해 임시정부청사는 1926년부터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1932년 까지 대한민국의 청사로 사용했던 곳으로, 전시관의 1층에서 짧은 비디오를 시청한 뒤에 2~3층을 관람하게 되며, 전시관 내에는 상해 임시정부 당시 쓰였던 가구, 서적,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화대표단 본부	 	대한민국임시정부 주화대표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환국한 이후 임시 정부의 잔무 처리와 중국내 한인교포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귀국문제 등 제반문제의 처리를 중국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조직한 기구였다. 주화대표단은 1945년 11월 1일 중국 정부와 협의 하에 정식으로 설치되었다.

남경 이제항 위안소 유적진열관	 	일본군이 1937년 난징을 점령한 후 운영한 이제항 위안소 형태가 온전하게 남은 곳을 자료관으로 바꿔 2015년 12월 1일 개관하였다. 이 곳은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시아에 세운 위안소 40여 곳 가운데 최대 규모로, 북한의 박영심 할머니 (2006년 작고)가 2003년 흥가로 방치된 이곳이 위안소임을 확인하며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됐다.
남경 대학살 기념관	 	1985년에 건립된 남경 대학살기념관은 일본의 남경대학살을 증거하고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기념관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는 사진과, 생존자의 증언, 후에 발굴된 인골들을 그대로 전시해 놓은 곳이다. 남경 대학살이란 중일 전쟁 때 중화민국의 수도인 난징을 점령한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 중국인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다.
독립운동가 묘지 (만국공묘)	 	상해에서 독립운동 활동을 하다가 타계한 한인 독립운동가의 묘가 있는 곳으로 원래는 정안사로에 위치했지만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상해시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한인 독립운동가와 외국인의 묘 일부가 현재 장소로 옮겨졌다. 이곳엔 박은식, 신규식, 노백린 등 다수의 임시정부요원의 유해가 있었고, 현재 유해는 국내로 봉환되었고 비석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상해 도시계획 전시관	 	상해 도시계획전시관은 중국 상하이시 인민광장에 있는 박물관이다. 이 곳은 상해 도시 발전이 초기부터 현재 까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시실 내부에는 1930년대 상하이의 도시계획 모형 뿐 아니라 비약하는 상해를 주제로한 미래 상해계획 모형과 도시계획 구역 분할 모형 등이 진열되어 있다.
상해 가정구 고의원	 	상해 고의원은 강북구 자매도시인 상해 가정구에 위치한 정원이다. 명대 가정죽각명가 주삼송(朱三松)이 설계하여, "10무의 정원, 5무의 저택"의 규모로 정원은 의원, 꽃향기 선원, 곡계학영, 유희연월 4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에는 일야당, 거위풀, 청청원, 남상벽 등의 명소가 있다.
남경 박물관	 	중국 3대 박물관 중의 하나이다. 1950년 3월 9일에 정식 개원했고, 국립 남경박물관이라 정식 칭해졌다. 중국의 최초의 박물관이자 정부의 투자로 건축한 최초의 대규모 종합 박물관, 국가 종합 역사예술박물관이며, 현재 국가 1급 박물관, 최초 중앙과 지역이 공동으로 건축한 국가급 박물관이다.

2 | 주요 방문 지역 연수 내용

윤봉길 기념관 및 의거 현장 방문

- 이번 중국 연수의 첫째 날 첫 번째 방문지는 윤봉길 기념관과 의거 현장이 위치한 홍콩 공원이었다. 현재는 루쉰공원으로 불리우며 1932년 4월 29일 동아시아 전체를 흔들어 놓은 윤봉길 의사의 폭탄 의거가 있었던 곳이다. 공원은 생각보다 규모가 커 보였고 안내 이정표에는 많은 중국어 가운데 ‘윤봉길 기념관’이라고 유일하게 한글로 표시되어 있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기념관에 도착하여 현지 중국인 해설사로부터 윤봉길 의사의 항일 투쟁에 대한 역사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중국인 해설사는 우리말이 조금 서툴렀지만 열심히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

- 기념관은 2003년 12월 4일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와 상하이 시 홍콩구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건립했다. 2층 규모인 기념관은 윤봉길 의사의 초상화와 그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자료와 사진 등이 전시돼 있었다. 1층에는 윤봉길 의사 흉상, 유품, 물통·도시락 폭탄 모형, 김구 선생님과 맞바꾼 시계 등이 전시되어 있었고, 2층에는 윤봉길 의사에 대한 다양한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었다.

- 당시 국민당 총통이었던 장제스는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했다고 감탄하였다고 한다.
이 일은 장제스가 대한민국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고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 가족을 두고 머나먼 타지에 와서 죽음을 각오하고 의거를 해야만 했던 그 때 당시의 윤봉길 의사의 심정을 감정이입을 해보면서, 기념관을 관람하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고 내 자신을 뒤돌아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다음 방문지로 이동하기 위해 기념관을 나와 공원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인인 것을 알아보고 어떤 중국 노인이 바닥에 '정의 필승 당대 영웅 윤봉길 의사'라고 바닥에 물로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보면서 왠지 모를 뿌듯한 감정이 올라왔다. 윤봉길 의사는 우리 민족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도 당대 영웅이었던 것이다.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방문

- 다음 일정으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하였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이다.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TV에서 상해 임시정부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방영되면서 요즘에는 하루 평균 방문객이 급증하였다고 한다.
- 좁은 골목길 사이 붉은 벽돌로 지어진 3층 건물로, 중국 현지 해설사의 설명과 안내를 받으며 약 40분 동안 관람을 실시하였다. 1층에서 임시정부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좁은 공간으로 계단을 올라가니 당시 쓰였던 가구, 서적, 사진 등을 볼 수 있었다. 다만 내부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좀 아쉬웠다.
- 이 곳은 1926년부터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1932년 직후까지 청사로 사용하였다.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 이후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1일에는 경성(서울)과 러시아 연해주 등 각지의 임시 정부들을 통합하여 상해에서 단일 정부를 수립하였다.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일제의 박해가 심해지자 임시정부는 상해를 떠나 항저우, 난징, 광저우, 충칭 등 독립이 되기 전까지 중국 각지를 전전해야만 했다.

○ 관람하는 내내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배고프고 고달픈 생활과 언제 끝날 지도 모를 독립운동에 대한 불안감을 생각해보니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이 떠나질 않았다.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이 곳에서 생활하셨던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자매결연도시 가정구 고의원 방문

○ 둘째 날 첫 번째 일정으로 상해 가정구에 위치한 고의원을 방문하였다. 상해 가정구는 강북구와 1997년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로 상해 서북부에 위치하여 있다. 고의원은 중국 명나라 만력제 때 민사적이라는 사람의 개인 정원으로 규모가 상당히 커서 관람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다.

상해의 현대화된 모습 속에 호수와 기암괴석들이 있는 여유롭고 아름다운 정원 풍경을 보니 놀라웠다.

- 고의원을 둘러보면서 가정구의 유적 표지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해 도시계획관에서도 가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구 고의원 내 유적관리 표지석> <상해 도시계획 전시관 가정구 위치도>

-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도시간 자매결연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계획성이 부족했고, 어렵게 이어진 청소년교류조차 이어가지 못하는 소극적인 문제점을 발견 할 수가 있었다.

중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2012년, 2015년 어렵게 이어진 가정구와의 청소년교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매년 초에 서신교환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자매국외도시간 교류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8년 가정구 청소년캠프에 강북구보다 늦게 자매결연 맺은 용산구는 초청되어 참여했으나 강북구는 초청받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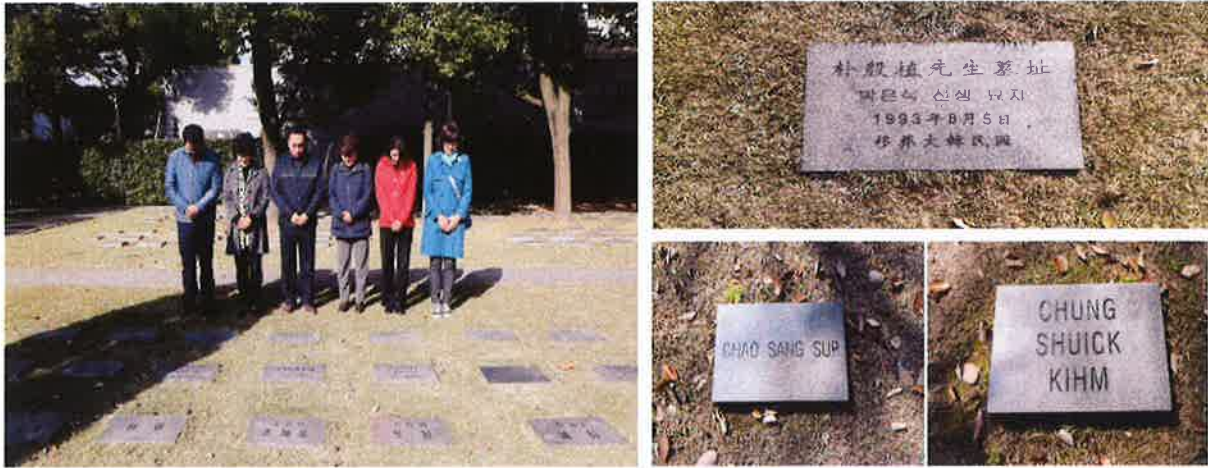
▶ 강북구- 상해 가정구 교류일지(강북구청 홈페이지 자매국외도시)

1997. 7. 21. ~ 7. 29.	강북구 대표단 가정구 방문: 자매결연체결 의향서 전달
1997. 12. 8. ~ 12. 13.	가정구 대표단 강북구 방문 · 양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1999. 10. 28. ~ 10. 31.	강북구 대표단 가정구 방문 · 상품교류 협의
2009. 4. 20.	가정구 대표단 강북구 방문: 방문내용-교류활성화를 위한 가정구장 친서 전달 [방문단: 상해시 직원(1), 가정구 직원(2)]
2009. 10. 20. ~ 10.23.	강북구 대표단 가정구 방문: 방문내용-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및 제안서 전달(방문단: 구청장 포함 5명)
2012. 5. 24.	가정구 대표단 강북구 방문: 방문내용-청소년 교류 관련 논의 (방문단 : 가정구 직원6)
2015. 8. 3. ~ 8.11.	중국 상해시 가정구 청소년 교류캠프 참가

상해 독립운동가 묘지(만국공묘) 방문

- 다음 일정으로 상해 독립운동가 묘지인 만국공묘로 향했다.
만국공묘는 현재 송경령능원 안에 위치하여 있는데, 송경령은 중국 근대 여성해방운동의 선구자이자 쑨원의 부인으로 국가 부주석의 자리까지 올라 중국 국민에게는 국모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다.
- 만국공묘는 박은식, 신규식, 노백린 등 다수의 임시정부요원의 유해가 묻혀있던 곳이다. 현재는 다행스럽게도 대부분 유해는 국내로 봉환되었고 바닥에 비석만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한 때 차가운 이국 땅에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웠다. 박은식, 신규식 등 널리 알려진 독립운동가 묘도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이름도 있었고 영문으로 표기 되어 있지만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이름도 있었다.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분들 보다 이름 없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훨씬 많다고 한다. 이제 우리 후손

들이 할 일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을 끝까지 발굴하고 그 분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해 도시계획 전시관 방문

- 상해 도시계획 전시관은 2000년에 공식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 국가관광국에 의하여 국가 AAAA급 관광지로 선정된 곳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물자체가 중국의 전통적인 성곽의 형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연해 독특한 느낌을 주고, 지붕은 상해의 시화(市花)인 백옥란을 연상케 하며 하늘, 구름과 잘 어우러지도록 정사각형의 망처럼 보이는데, 이는 도시계획의 요소 중 하나인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것이다.
- 전시실 내부에는 1930년대 상하이의 도시계획 모형 뿐 아니라 "비약하는 상하이"를 주제로한 미래 상하이 계획 모형과 도시 계획 구역 분할 모형 등이 진열되어 있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로비에서 동방명주, 금무대하 등 유명 건물의 모형이 가장 눈길을

끌고, 2층의 전시관은 과거를, 3층과 4층에서는 주거문화, 교통, 환경보호, 상해 여행 등을 테마로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상해 도시계획 전시관 내 상해시 시기별 현황 및 미래 계획>

- 상해 도시계획관에서 제일 눈에 들어 온 곳은 상해 도시의 시기별 발전 현황과 미래계획을 담고 있는 전시관이었다. 어느 도시든 현재까지 이어지는 과정과 역사가 있고 그 속에 도시민의 삶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강북구의 역사와 구민의 삶을 담아내는 기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북구의 도시발전 과정과 역사, 구민의 삶을 담아내는 기록관을 온라인 공간에 제작하여 누구나 강북구의 생생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또한, 구청 본청 일정 공간벽에 투사하여 주민들이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사례: 강동구 역사가 모여 있는 곳- 강동사료관 개관 (2017.11)

- 현행법상으로는 서울시 차원에서만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한데 (비교: 서울지역 외에는 시군차원의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음) 현실에서는 자치구 차원의 도시계획 수립의 필요가 있어 최근 들어 몇몇 자치구가 특성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서울지구청장협의회에서도 서울 자치구 차원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에 강북구 차원의 도시계획 수립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추진된 타구의 도시계획 수립 노력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구에 적용을 타진해야 할 것이며, 서울 자치구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자치구 차원 도시계획 수립사례

-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주민참여단 20개동 209명 구성운영(2017.12)
- 노원구 도시발전계획(2040노원플랜) 수립 힐링도시계획단 주민참여단 운영(2019.6)
- 금천구,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 도시정책 구민계획단 구성·운영(2019.10)
- 송파구 2030송파도시발전기본계획 발표(2019.12)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화대표단 본부 방문

- 다음 일정으로 남경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화대표단 본부 옛 터에 방문하였다.
- 대한민국임시정부 주화대표단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환국한 이후 임시정부의 잔무처리와 중국내 한인교포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귀국문제 등 제반문제의 처리를 중국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조직한 기구였다. 주화대표단은 1945년 11월 1일 중국 정부와 협의하에 정식으로 설치되었다. 1947년 1월 1일 한국주화대표단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1948년 8월 10일 해산되었다.

주화대표단은 처음 설치되면서, 중경 연화지 임시정부 청사를 본부 사무소로 사용하였으나, 중국 국민정부가 1946년 5월경 남경으로 이전함에 따라 함께 남경으로 이전하여 마로가 복흥신촌 5호에 자리 잡았다.

- 주화대표단 건물은 일반 주택 같은 건물로, 이곳이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이었다곤 생각되지 않을 만큼 평범한 모습이었어서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기 쉬울 것 같았다. 본부 입구에는 돌비석이 있었으나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가까이서 봐야지만 그나마 볼 수 있는 정도였다. 현재는 개인의 소유로 현지인이 거주하고 있어 내부구조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워서 안타까웠다.

-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독립으로 인하여 중국 내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마음이였을까?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에 남게 되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으로 짐작해 본다.



남경 대학살 기념관 방문

- 중국으로 연수를 떠나기 얼마 전에 우리는 남경 대학살 기념관이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보수공사로 인하여 출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국 남경으로 일정을 정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곳을 방문하는 것이었고 이제와서 일정을 바꿀 수 없기에 너무도 안타까웠다. 그렇지만 혹시나 사정을 말하면 출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남경 대학살 기념관으로 향했다.

실날 같은 희망을 갖고 기념관에 도착하였는데 안내표지판에 보수공사로 출입할 수가 없다고 쓰여 있어, 우리는 바리게이트 밖에서 기념관 안에 전시된 동상들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동상들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죽은 아이를 들고 오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이었다. 아이를 잃은 절망적인 어머니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졌다.



- 남경대학살 기념관은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능가하는 비극의 역사인 남경대학살을 고발하는 기념관이다. 남경 대학살이란 중일 전쟁 때 중화민국의 수도인 남경을 점령한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 중국인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약 30만 명의 중국인들이 학살되었다. 1937년 12월 13일부터 1938년 2월까지 6주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1939년 4월에는 1644 부대가 신설되어 생체 실험 등이 자행되었다.
- 2014년 남경대학살 77주년을 맞이하여 중국 정부는 12월 13일을 국가추모일로 지정하였다. 역사를 잊지 말자는 뜻에서 남경대학살 기념관은 상시 무료 입장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 이 기념관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전해진다고 한다. 택시를 탄 일본인 관광객이 목적지를 말하자, 중국인 택시 기사가 ‘일본인은 여길

봐야 한다’며 목적지를 무시하고 택시비를 받지 않은 채 이 기념관으로 데리고 왔다는 일화인데, 남경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의 일본인에 대한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경 이제항위안소 유적진열관 방문

- 이번 비교시찰의 마지막 날인 11월 21일, 호텔에서 아침 조식을 마친 후 우리는 또 다른 아픔을 담고 있는 남경 이제항위안소 유적진열관을 방문하였다.
- 이제항위안소 유적진열관은 아시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보존이 잘 된 위안소 유적이며, 실제 일본군 위안부 박영심 할머니가 방문하여 현장 증언을 하였던 곳이다.
- 이제항위안소 유적진열관을 사전 예약하여 방문하였는데, 삼엄한 통제 아래 입장할 수 있었고 실외를 제외한 진열관 내부는 절대 촬영할 수 없었다. 그만큼 일반 유적지와는 달리 남경대학살기념관과 함께 일본군의 만행으로 인한 큰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었다. 소지품과 신분 확인 후 좁은 통로의

입구를 거쳐 들어선 진열관의 마당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여러 할머니의 사진과 이곳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동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 우리는 중국에서 유학 중이며 이곳 진열관에서 자원봉사 중에 있는 한국 대학생의 안내를 받아 그 때의 위안소의 모습을 재현한 모습과 각종 사료들을 전시하고 있는 진열관을 관람하였다. 진열관은 실제 위안소를 리모델링한 곳으로서, 기초진열관, 유적진열관, 테마진열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군이 중국 내에서 위안소를 설치하고 운영해 온 방법과 중국 내 위안소의 분포,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하는 증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히 위안부로 고통 받던 중 임신까지 하였던 박영심 할머니는 이곳 위안소를 방문하여 “내가 여기에 있었다”고 외치며 일본군의 만행을 증언한 곳이었다.
- 기초진열관은 위안부 제도의 의미와 실상, 학자들의 연구 등이 기록되어 있었고; 유적진열관은 위안소로 사용된 작은 방들과 함께 피해자들이 그 당시에 썼던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위안부들의 이름이 적힌 팻말, 사진 등을 통해 실제 그 분들의 삶이 상상되어 더욱 마음이 아팠다. 마지막 테마진열관은 중국 각 지역, 상해, 한국, 동남아 등의 테마 별로 나뉘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피해자 분들의 진열관에선 더욱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

- 거의 관람 마지막 쯤에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의 얼굴 동상이 있었는데, 옆에 비치되어 있는 손수건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눈물을 닦아 드려도 금방 다시 눈물을 흘리시는 할머니 얼굴을 보니,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이 마를 때 까지 계속해서 닦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현재 위안부 생존자들의 무수한 증언과 함께 죄행을 공소하였지만 일본은 지금까지도 위안부 제도를 부인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노예가 될 것을 강요당했던 여성들은 상당수가 잔혹한 성적 학대로 목숨을 잃었으며, 생존자의 경우도 지체장애나 출산능력 상실, 극심한 심리적 상처와 함께 지금도 가시지 않는 악몽으로 남아 있다.
- 진열관을 돌아보며 마당으로 돌아와 다시 마주한 할머니들의 사진들, 그리고 그 모퉁이에 “눈물 젖은 땅”이라고 적힌 표지를 보니 위안부 제도의 잔인함에 대해 더욱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이번 중국 상해와 남경 연수 내내 우리 독립운동과 일제 만행 유적지를 보면서 말할 수 없는 먹먹함과 숙연함, 그리고 분노 등 혼재한 여러 감정들과 함께, 이러한 역사를 소중히 생각하고 기억하여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 같은 비극이 다신 되풀이 되어선 안 되도록 각자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3 | 기타 방문 / 견학지

□ 상해, 남경 도로 및 주택가

《전기 자전거, 오토바이 및 버스》

- 공해유발물질 배출 등을 고려할 때 상해의 경우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전기오토바이의 도입이 많이 되어 참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CNG를 거쳐 이제 전기버스를 아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고, 제주도에서 그나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해의 시도는 미래도시를 지향하며, 환경을 고민하는 정책당국의 결정이고 칭찬할 만했다.

전기 오토바이는 너무 조용하여 보행자와 사고 위험이 있을 정도였는데, 보행자 안전에 대한 준비만 된다면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배달업체들과의 협약에 의한 전기

이륜차 지원사업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존 엔진 이륜차의 소음과 공해물질 배출량을 생각하면, 서울에서 이뤄지는 모든 배달이 가급적 전기 이륜차로 전환되어 소음이 적어지고, 미세먼지 걱정 없어질 그 날을 상상해 본다.

또한, 서울의 따릉이와 같은 공공/민간 공유자전거가 다수 배치되었는데, 자동차 도로와 분리된 자전거·오토바이 전용도로가 마련되어 있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길가 곳곳에 자전거·오토바이 주차구역선을 그어 그나마 정돈되게 주차하도록 하였다.

※ 충전방식: 주로 주택가(공동주택 및 주거 밀집지역)에 충전장치가 설치되어 충전

강북구는 평지가 적고 오르막 길이 많으니 서울시 따릉이 중에 전기충전 따릉이를 가능하면 많이 설치했으면 한다.

강북구 곳곳에서 자전거 거치대가 아닌 장소에 자전거를 세워놓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정돈된 자전거 주차를 위해 공간이 확보되는 곳에는 주차구역선을 그었으면 좋겠다.

예) 수유역에 자전거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곳에 다수 주차되는 자전거에 대해서 주차 구역선을 그어 그 안에 주차하도록 유도 필요



〈자전거·오토바이 전용도로〉



〈주차구역선〉



〈사거리 전용좌회전 차선〉



〈길거리 충전소〉

《잔여시간 알림 차량신호등》

-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경우 보행자신호등에만 잔여시간이 표시 되는데, 상해와 남경에서는 차량신호등에도 아주 크게 잔여시간 알림이 표시되어 있어 신호가 바뀌는 것을 더 안전하게 준비 할 수 있어 보였다.(초록/빨강/노랑 신호 때 모두 숫자표시 작동함)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태국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안전을 위한 고려는 지나침이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였으면 좋겠는데, 숫자신호등 교체비용이 많이 들어 부정적 이라면, 그 보완책으로 사거리 등에 보행자횡단보도에 숫자 신호등을 전면 설치하여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숫자신호등을 확인하여 신호변경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자동차용 잔여시간 숫자 신호등(초록등⇒노랑등⇒빨강등)〉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 중국의 경우 2019년 7월부터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도시 곳곳에서 다양한 재활용 분리수거 쓰레기통과 분리수거 장소를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와 유해물질까지 네 종류로 나누어 분리수거를 하기도 하고,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로 두 종류로 나뉘는 경우도 있다. 다소 늦게 시작한 분리수거이지만 정책당국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유해물질 안에 건전지와 수은 함유물질(혈압계, 온도계 등)을 포함시킨 것은 칭찬할만 하지만, 형광등을 포함 시키지 않은 것은 우려되는 지점이 많다. 우리나라의 과거를 생각할 때 잘게 깨서 버려지는 형광등에서 토양이나 하천을 오염시킨 수은이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병모양의 통을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으로 만든 아이디어는 아동이나 글씨를 못 읽는 사람들에게도 재활용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천하는데 도움을 줄 것 같다. 아울러 분리수거 대상 물품을 글씨와 함께 그림을 병기한 것도 아동이나 글씨를 못 읽는 사람들(우리같은 외국인들 포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받았다. 재활용 분리수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중국의 다양한 시도를 확인 할 수 있어서 인상 깊었다.



〈가로변 쓰레기통(건전지 분리 포함) 다양한 재활용분리 쓰레기통 사진〉

《녹지공간과 태양열 발전》

- 상해 도시계획관을 관람하며 앞으로 상해가 Green, Environmental Shanghai로 발전할 계획임을 알았는데, 버스로 이동하며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계획도시이니 만큼 공원의 규모가 만만치 않았지만, 특히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순환도로의 난간에도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순환도로 아래의 기둥사이에도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많은 저층아파트의 지붕에 태양열집열판이 설치되어 있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순환도로 난간 녹지공간〉



〈지붕위 태양열 발전〉

《QR코드 기반 모바일 결제 시스템》

- 지금 서울시에서 시작한 제로페이도 이런 방식인데, 중국은 신용카드 사용을 건너뛰고, 현금사용에서 바로 스마트폰 앱 결제(알리페이, 위챗페이)로 넘어가 그 현장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생선가게, 길거리 음식, 군고구마 가게 도 알리페이 결제 등이 가능했다. 우리는 여행자여서 알리페이 체험을 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중국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



〈길거리 음식 알리페이 결제〉

4 | 소감 및 시사점

-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역사적으로 뜻깊은 해인 만큼 우리는 중국내 상해 임시정부, 윤봉길 기념관 및 의거 현장, 남경 일제 만행 유적지 등에 대해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는 것이 이번 공무국외연수를 추진하게 된 주된 목적이었다.

공무국외연수를 준비하면서 중국 내 방문지역 관련 자료를 사전 숙지하여 방문기관 시찰 시 좀 더 내용적으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 중국은 거대한 국가이니 만큼 다양한 문화, 발전된 모습들로 새로운 자극을 많이 받았지만, 특히 의미 있었던 점은 임시정부 유적지와 위안부기념관 등 일제강점기 역사의 중요한 현장들을 방문한 것이었다. 책임을 지거나 진정어린 사과를 당사자로부터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 특히 우리 강북구에는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신 이시영, 신익희, 여운형 선생님 등의 애국선열묘역과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 중국 각 지역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순국한 17위의 합동묘소가 위치하여 있다. 이런 이유로 연수 중 임시정부 관련 지역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낀점에 대하여 어떻게 강북구에 적용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 또한 강북구 자매결연 도시인 상해 가정구 고의원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두 도시간의 교류 활동에 있어서 다소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여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자매국외도시간 교류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 하였으며, 상해 도시계획관의 도시 시기별 발전 현황을 둘러보며 우리 강북구의 도시발전 과정과 역사 등을 담아내는 기록관의 제작과 강북구 차원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법령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다.
- 아울러 2019년 현재의 중국을 통해 함께 발전해 나갈 이웃 국가로서 다양한 모습들을 배워 오는 의미 있는 기회이기도 했는데, 우리가 불편하다고 머뭇거리는 분리수거 문제, 전기이륜차 등의 도입 문제와 앞으로 제로폐이는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지에 대한 문제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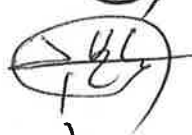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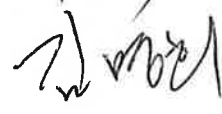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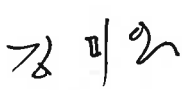
- 이번 연수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우리의 역사에 대해 다시금 깨닫는 계기이자,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히 몰랐던 역사 속 인물에 대해 알 수 있어 더 뜻깊은 연수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며 중국 연수 보고서를 마무리 해 본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

※ 자료 수집 및 참고 문헌

- 위키백과, 두산백과 등

보고서 작성자

이백균 (		)
유인애 (		)
구본승 (		)
김명희 (		)
김미임 (		)
최미경 (		)